

2017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7.7.28(금) 12:00~13:30

■ 주요 회의 내용

▲ 뉴스 진행 앵커 관련

- 연합뉴스TV가 그동안 많이 나아지고 발전했지만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아쉬움이 있음. 두 명의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경우 한명이 앵커 멘트를 읽는 동안 나머지 한명의 시선과 표정이 어색해보임. 앵커 멘트를 읽을 때는 그 앵커만 카메라로 잡으면 더 좋을 듯(이태식 위원장)
- 뉴스에서 앵커의 역할이 크고 신뢰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함. 앵커의 멘트뿐만 아니라 표정 관리도 매우 중요한 바, 일부 앵커는 표정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음. 얼굴이 다소 어둡고 경직돼 시청자 입장에서는 편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의상도 때때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어두운 느낌을 줄 때가 있음.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신현택 부위원장)
- 앵커들의 모습이 신선하고 젊은데다 배우를 할 만하다 싶을 정도로 예뻐. 하지만 뉴스를 전달한다기 보다는 약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쉬움(정현주 위원)
- 저녁시간대 일부 앵커의 경우 방송 진행이 어색함. 조명 혹은 앵커 표정 문제로 보이는 데 TV뉴스는 전파를 타고 소리가 아니라 화면이 나간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함(박정숙 위원)

▲ 보도의 균형과 취재의 심층성

- 연합뉴스TV는 팩트 중심의 중도언론을 표방하고 있음. 격동의 세월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여기에 맞춰 새로운 뉴스가 필요하다고 보임. 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도 함께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함. 때때로 한쪽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음(박정숙 위원)
-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뉴스이므로 미래를 위해 균형 있게 찬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음(김상선 위원)
- 연합뉴스TV가 문재인 정부에 너무 호의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임.(웃음) 클레임을 제기하는 부분이 거의 없음. 무조건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임(이재경 위원)
- 7월27일 방송한 항공사별 지연율 관련 내용에서 지연율만 나왔지, 지연된 사유

가 빠져있어 아쉬웠음. 지연율과 함께 왜 이·착륙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갔으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함(박동민 위원)

- 연합뉴스TV의 뉴스가 연속성이나 안정성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음.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나와야할 것 같음. 심층보도를 통해 연합뉴스TV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뉴스가 더욱 많아졌으면 함(박정숙 위원)

▲ 뉴스 소재의 다양성 제고

- 아침뉴스를 보면 전날의 국내 주요 뉴스가 대부분 나오고 있음. 중요한 뉴스의 경우 반복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간밤에 벌어진 해외 중요뉴스를 정리해서 먼저 다룬 뒤 국내 주요뉴스를 다뤄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먼저 먹고, 국내뉴스를 먹으면 어떨까함(이태식 위원장)
-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주요 이슈가 분출하고 있는데, 옳고 그르고를 떠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줬으면 함(이태식 위원장)
- 연합뉴스TV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스트레이트한 뉴스에 치중하다보니까 문화와 여성부문에 대한 뉴스가 부족함. 소재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함(정현주 위원)
- 일반뉴스 외에 교통문화 등 캠페인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는 뉴스, 따뜻한 뉴스도 함께 다뤘으면 좋겠음.(김용직 위원)
- '담배 끊으면 혈압이 정상이다'는 뉴스를 얼마 전 봤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관련 뉴스를 많이 다뤄주었으면 함(박동민 위원)
- 스타성 있는 기자들을 발굴해야 하고, 그런 기자들이 자주 방송에 출연하도록 해야 함. 화면 노출 빈도를 높여서 '왜 자꾸 나오지' 할 정도로 노출을 늘리면 어떨까.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기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주철환 위원)

▲ 프로그램 제작 · 기획 의견

- 앵커 두 명이 번갈아 앵커 멘트를 읽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명이 전체 앵커 멘트를 읽으면 어떨까함. 그러면 뉴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앵커 멘트를 읽지 않는 한명이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일도 없어질 것임(이태식 위원장)
- 뉴스 포맷을 다양화했으면 함. 일부 지상파에서 카드뉴스 등을 하고 있는데 산뜻해 보였음. 연합뉴스TV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김용직 위원)
- 최근 일자리가 최대 화두인데 주1회 구인구직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박동민 위원)
- 몇몇 제작프로그램이 뉴스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있는데 인터뷰나 대담 프로그램의 신설도 고려해봤으면 함. 연합뉴스TV 하면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우리말 잘하는 외국인이 국제뉴스 코너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

으면 함(주철환 위원)

▲ 자막, 표현 및 화면구성 유의

- 리포트 등의 자막의 경우 공간상 제약으로 띄어쓰기 원칙을 모두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이해되지만, 하단에 흘러가는(Rolling) 자막의 경우 비교적 여유가 있는 만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띄어 썼으면 함. 경우에 따라 한자를 쓰는 것도 검토해봤으면 함(김상선 위원)
(예) 작년동기비-> 작년 동기비, 초대기업-> 초 대기업, 직지코리아->직지 코리아, 아시아주니어역도-> 아시아 주니어역도 등
- 뉴스와 더불어 하단에 흘러가는(Rolling) 자막 뉴스에 따옴표를 남용하는 문제를 고쳤으면 함. 강조나 인용의 의미로 홑따옴표나 겹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의 말인지 분명하게 밝혀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겹따옴표는 사용을 자제하고, 홑따옴표는 최대한 없이 쓰는 게 더 차분해 보임. 해외 유수 방송은 인용부호 사용을 지극히 절제하고 있음(이재경 위원)
- '모 국회의원 보좌관 음주 혐의로 불구속 입건' 내용에서 음주 혐의가 아니고 음주운전 혐의인데 자막 제목에서 다 적어줘야 했음(박동민 위원)
- '성공다큐 정상에 서다'에서 자막과 내레이션이 똑같이 나가고 있음. 시각장애인에게는 배려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박정숙 위원)
- 뉴스를 듣다보면 기자 이름 앞에 사용하는 회사 명칭이 연합뉴스 000입니다.와 연합뉴스TV 000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용됨. 기자가 소속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시청자에게는 혼란을 줄 뿐이므로 통일이 필요해 보임(이재경 위원)
- 대부분 언론사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전라북도 모 대학총장과 이사장과 간부들이 학교 돈으로 별 것을 다 했다'는 내용에서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아 어느 학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음. 학교명을 알려주어야 뉴스가 좀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단독취재가 아니고 교육부 자료라면 실명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음. 한국 언론이 익명성을 통해 지나치게 인격을 보호하고 있는 느낌임. 익명으로 쓰다 보니 오히려 전북에 있는 모든 대학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음. 익명 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함(이재경 위원)
- 국회, 청와대, 검찰 같은 정부기관의 자료화면이 나갈 때 같은 그림이 나가는 경우가 있음. 화면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함(이태식 위원장)
- 뉴스의 배경에 쓰이는 자료화면이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함(정현주 위원)

▲ 긍정적 의견

- 오후 4시대 뉴스 1번지에 경륜 있는 앵커를 투입하여 좋은 느낌을 받음(신현택 부위원장)

- 전체적인 자막이 흰색과 주황색으로 통일되면서 깔끔하고 주목도 높아짐(주철환 위원)
- 이번 물난리 당시 피해현장 곳곳을 빠르게 중계하면서 빠르고 생동감 있는 뉴스채널로서 강점을 드러냄(주철환 위원)
- (끝)